

Cheung, F., & Lucas, R. E. (2016). Income inequality is associated with stronger social comparison effects: The effect of relative income on life satisfac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10(2), 332-341.

연구의 목적

소득은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진 바 있다. Diener와 동료들은 (2010) 전 세계 데이터를 바탕으로, 가구 수입과 삶의 만족도가 정적인 상관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으며, 이는 다른 연구에서 여러 차례 반복검증되었다 (Clark, Frijters, & Shields, 2008; Howell & Howell, 2008). 위 연구들은 절대적 임금 효과 (absolute income hypothesis)를 지지하며, 만족스러운 삶을 영위하기 위해 자원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한다.

한편, 임금의 상대적 효과(relative income effect; 주변 사람들보다 소득이 낮을 때 삶의 만족도도 낮아질 것이다)에 관한 연구는 아직 미흡하다. 이전 연구는 자신의 임금의 상대적 위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직접 질문하는 방식을 택했지만, 여기에 관한 인과관계를 내리기 불명확하다 (Layard et al. 2010). 역으로, 행복감이 높아 자신의 임금이 상대적으로 높은 위치에 있다고 지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Taylor & Brown, 1994). 또한, 가상의 시나리오를 통해 상대적 임금의 수준을 조작한 연구들은 실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Solnick & Hemenway, 1998). 하지만, 이런 방법론적인 한계를 극복하고, 실제 소득을 바탕으로 진행된 연구들의 결과는 비교적 일관적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 바 있다.

이런 맥락에서, 연구자들은 실제 소득과 삶의 만족도 간의 관계를 다시 밝힐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여, 본 연구는 소득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았다. 또한, 두 변인이 관련이 있다면 어떤 변인이 이 관계를 조절하는지 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임금의 불평등이 삶의 만족도에 부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이전 연구들을 참고하여 (Oishi et al., 2011), 소득 불평등(income inequality)이 상대적 임금과 삶의 만족도 간의 관계를 조절하는지 추가로 알아보았다.

연구 방법

본 연구에서는 미국 질병관리본부에서 수집한 Behavioral Risk Factor Surveillance System (BRFSS)라는 데이터를 바탕으로 진행되었다. 결과 변인으로는 삶의 만족도가 투입되었고 1수준 예측 변인으로는 가구소득 (절대적 소득), 성별, 인종, 교육 수준 등 기타 통제 변인들이 투입되었다. 2수준 예측 변인으로는 카운티별 소득수준 (상대적 소득), 카운티 소득 불평등 (지니계수)와 기타 2수준 통제 변인들이 투입되었다. 총 170만 명이 조사되었으며, 본 연구에서 활용된 구체적인 설문내용과 변수 수집과정은 다음과 같다.

설문내용과 주요변인

결과 변인: 삶의 만족도 (Life Satisfaction).

참가자들은 “당신의 삶에 어느 정도로 만족하나요?”에 대한 질문을 4점 척도를 활용해 응답하였다 (1 = 매우 만족하지 못한다, 2 = 만족하지 못한다, 3 = 만족한다, 4 = 매우 만족한다).

1수준 예측 변인: 가구소득 (Household Income).

참가자들은 자신의 가구 소득에 대한 질문에 응답하였다 (1 = \$10,000 이하, 2 = \$10,000 이상 \$15,000 미만, 3 = \$15,000 이상 \$20,000 미만, 4 = \$20,000 이상 \$25,000 미만, 5 = \$25,000 이상 \$35,000 미만, 6 = \$35,000 이상 \$50,000 미만, 7 = \$50,000 이상 \$75,000 미만, 그리고 8 = \$75,000 이상). 참가자들의 가구소득은 해당 항목의 중위값으로 계산이 되었고, \$75000 이상일 경우, 이전 통계를 활용하여 \$112500으로 계산하였다.

기타 1수준 통제 변인.

참가자들의 성별, 혼인 상태, 교육 수준, 인종, 고용 상태, 나이, 아이들의 수가 통제 변인으로 포함되었다.

2수준 예측 변인: 카운티 소득 (County income)

카운티 소득은 American Community Survey (ACS)의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이는 매년 진행되는 조사로, 미국 인구조사국 (U.S. Census Bureau)에서 실시되며, 5년 단위의 데이터도 제공도 함께 제공된다. 본 연구는 2006년부터 2010년까지의 정보를 통합한 카운티 소득을 이용하였다 (U.S. Census Bureau, 2008). 카운티 소득은 각 카운티의 전체소득 중 중위값으로 계산되었다. 카운티 소득은 정적으로 편포되어 있어, 로그변환이 되었다. 1수준 변수인 가구소득도 비교를 위해 로그 변환되었다.

2수준 조절 변인: 임금 불평등 지수 (Income Inequality).

소득 불평등도 ACS에서 제공된 지니계수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지니계수는 0과 1 사이의 값이며, 클수록 더 높은 임금 불평등을 보여준다.

기타 2수준 통제 변인.

높은 생활 물가가 낮은 삶의 만족도와 관련되어 있을 수 있다는 것으로 고려하여, 중위 주거 비용을 통제하였으며, 임금 불평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카운티 수준의 변인들도 추가로 선정되었다. 구체적으로 인구 크기, 인구밀집도와 카운티의 면적이 등의 통제 변인들이 투입되었다. 앞서 언급한 모든 변인은 전체평균을 기준으로 중심화되었다.

분석 방법

본 연구의 목적은 크게 세 가지이다. 우선 (1) 높은 이웃 (카운티) 소득 (higher neighborhood income; 상대적으로 낮은 소득)이 낮은 삶의 만족도와 관련이 있는지 (2) 불평등 지수가 높은 지역에 살수록 소득의 상대적 효과가 더 큰지 (stronger relative income effect; 주변 사람들보다 소득이 낮을 때 삶의 만족도도 낮아질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 소득 불평등이 상대적 소득과 삶의 만족도에 주는 조절효과 (위의 (2)의 효과)가 가구소득이 낮은 개인들에게 더 강한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알아보기 위해 카운티 단위와 개인 단위로 나뉘는 데이터의 속성을 고려하여 다층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활용된 무선 기울기 모형은 다음과 같다.

개인 수준:

$$y_{ij}(\text{삶의 만족도}) = \beta_{0j} + \beta_{1j}(\text{가구 소득}) + \beta_{2-j}(\text{기타 통제변인}) + r_{ij}$$

카운티 수준:

$$\begin{aligned}\beta_{0j} &= \gamma_{00} + \gamma_{01}(\text{카운티 소득}) + \gamma_{02}(\text{소득불평등}) + \gamma_{03}(\text{카운티 소득 X 소득 불평등}) \\ &\quad + \gamma_{04-08}(\text{기타 통제변인}) + u_{0j} \\ \beta_{1j} &= \gamma_{10} + \gamma_{11}(\text{카운티 소득}) + \gamma_{12}(\text{소득 불평등}) + \gamma_{13}(\text{카운티 소득 X 소득 불평등}) \\ &\quad + \gamma_{04-08}(\text{기타 통제변인}) + u_{1j}\end{aligned}\quad (1)$$

분석 1: 카운티 소득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γ_{01})

삶의 만족도는 결과 변인으로 투입되었고, 가구소득은 1 수준 예측 변인으로, 카운티 소득은 2수준 예측 변인으로 선정되었다. 이 외에도 앞서 언급된 여러 통제 변인들이 분석에 포함되었다. 카운티 소득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낮아질거라고 예상했다.

분석 2: 카운티 소득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 불평등 지수에 따라 달라질까? (γ_{03})

카운티 소득과 삶의 만족도 간의 관계를 임금 불평등이 조절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본 가설을 설정하였다. 지니계수와 카운티 소득이라는 상호작용항을 예측 변인으로 투입하여, 소득 불평등의 조절 효과를 알아보았다. 만약 위 식에서 γ_{03} 에 해당되는 상호작용계수가 유의미하게 부적인 상호작용을 한다면 카운티 소득과 삶의 만족도 간의 관계가 소득 불평등이 높은 지역일수록 강하다는 것을 보여줄 것이다.

분석 3: 가구소득이 낮은 개인들이 상대적 임금의 효과를 더 강하게 경험? (γ_{13})

마지막으로, 소득 불평등이 카운티 소득과 삶의 만족도 간의 관계가 특히 가구소득이 낮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더 강하게 나타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삼원 상호작용항이 투입되었다. 가구소득(1수준)의 기울기는 무선화되었으며, 이를 예측하는 상호작용변인인 카운티 소득(2수준)과 소득 불평등(2수준)이 예측 변인에 포함되었다. 즉 γ_{13} 이라는 계수가 유의미한지 알아보고자 한다.

결과

결과 1: 카운티 소득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γ_{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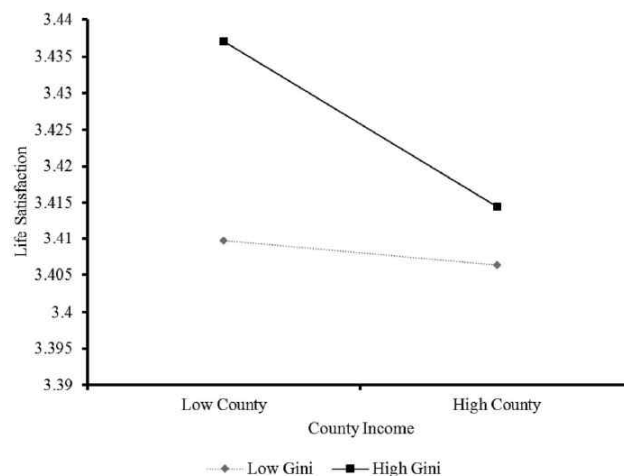
카운티의 소득은 삶의 만족도와 부적인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gamma_{01} = -0.06$, $SE = 0.015$. 다시 말해, 가구소득과 기타 변인들을 통제해도, 소득이 높은 카운티에 살수록 삶의 만족도는 낮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과 2: 카운티 소득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 불평등 지수에 따라 달라질까? (γ_{03})

예측한 대로, 지니계수는 상대적 소득과 삶의 만족도 간의 부적 관계를 조절하였다, $\gamma_{03} = 0.06$, $SE = 0.015$. 다시 말해, 더 높은 소득 불평등에 살 때 (+1 SD), 낮은 불평등 카운티에 살 때보다 (-1 SD) 상대적 임금과 삶의 만족도의 부적 관계가 더 강해졌다 (그림 1). 단순 기울기 분석을 한 결과, 카운티 소득과 삶의 만족도 간의 관계가 불평등이 낮은 지역에서보다 ($b = 0.10$) 높은 지역에서 강해졌다 ($b = 0.01$).

그림 1

소득 불평등에 따라 달라지는 카운티 소득과 삶의 만족도의 관계.



결과 3: 가구 소득이 낮은 개인들이 상대적 임금의 효과를 더 강하게 경험? (γ_{13})

카운티 소득 (2수준), 소득 불평등 (2수준)과 가구소득 (1수준)간의 삼원 상호작용이 유의미하였다, $\gamma_{13} = 0.81$, $SE = 0.31$. 결과2에서 언급된 소득 불평등의 조절 효과가 개인의 가구 소득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소득 불평등이 높은 지역에서 상대적 소득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가구소득이 낮은 사람들에게서 더 강하게 나타났다.

논의 및 비판

본 연구는 상대적 소득 (거주하는 카운티의 소득)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소득 불평등 (income inequality)이 이 관계를 어떻게 조절하는지 알아보았다. 그 결과, 연구자들의 예상대로, (1) 더 잘 사는 카운티에 거주할수록 삶의

만족도가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났으며, (2) 카운티의 소득 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은 특히 임금 불평등이 높은 카운티에 살수록 강력해졌다. (3) 마지막으로 (2)에서 언급한 조절효과는 가구소득이 낮은 사람들에게서 두드러지는 경향이 있었다.

우선, 본 연구는 실제 소득과 카운티 소득을 이용하여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상대적 소득의 효과 (“relative income effect”)을 연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연구자들이 170만 명이라는 표본과 2425개의 2수준 카운티 데이터를 활용했다는 것은 본 연구의 강점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Average Deviation (AD)을 이용하여 각 카운티별로, 삶의 만족도의 분산이 동일한 지 확인하였으며, 카운티별로 여러 변수에 대해 충분히 변산성이 있는지 급내상관계수를 통해 확인하였다. 데이터 분석 전 자료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했다는 점 또한 주목할 만했다.

하지만, 본 연구도 몇 가지 한계점이 존재한다. 우선, 임금을 측정하는 과정에서 소득 계층 (income brackets)을 활용하였는데, 이는 주로 소득 하위 계층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항목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 ‘\$75,000 이상’ 이 상한선으로 제공이 되었는데, 이러한 분류는 소득의 다양한 분포를 잡아내지 못한다는 점에서 한계가 존재한다. 이러한 측정방법으로 인해, 본 결과가 모든 소득계층에 대해 일반화할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을 갖도록 한다. 나아가, 본 연구는 오픈데이터의 특성상 삶의 만족도에 대한 단일문항들을 사용하였으며, 척도는 4점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한계가 존재한다. 이러한 단일문항이 실제 7점 척도 5문항으로 구성된 삶의 만족도와 관련된 척도와 비슷한 효과를 보여주는지 철저히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는 횡단연구가 지닌 한계점을 안고 있다. 본 연구가 인과적 결론을 강화하기 위해선 종단연구를 하거나, 카운티 간 이주를 한 사람을 대상으로 삶의 만족도가 어떻게 변하는지 살펴보는 것이 추천된다. 예를 들면, 과거보다 더 잘 사는 카운티에 이주하게 되어 소득의 상대적 위치가 바뀐 사람들은 삶의 만족도가 전반적으로 떨어질 수 있다. 거꾸로, 소득의 상대적 위치가 높아지면 삶의 만족도가 높아지는지 알아볼 수도 있겠다.

마지막으로, 높은 표본 수는 다양한 표본을 확보할 수 있고 검정력이 높은 것이 장점이 될 수 있지만, 지나친 검정력은 미미한 효과를 과장할 수 있다. 이전 연구들의 비일관적인 결과들을 살펴보았을 때, 현재 나온 결과가 높은 표본수로 인해 효과가 과장되어 나타난 것인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Koizumi, N., & Yoshikawa, S. (2019). Farming cultivates a community-level shared culture through collective activities: Examining contextual effects with multilevel analys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16(1), 1-14.

연구의 목적

개인주의적인 사회에 비해 집단주의적인 사회는 타인의 평판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문화차를 설명하는 여러 요인이 제기되어 왔지만, 최근 가장 설득력 있다고 판단되는 요인은 각 지역의 (과거 혹은 현재의) 주된 경제활동이다. 구체적으로, 연구자들은 농업 활동은 집단주의적인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상대적으로 방목은 개인주의적인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친다고 언급한다 (Berry, 1967; Uskul, Kitayama, & Nisbett, 2008). 이처럼 농업문화가 실제로 집단주의적인 태도 (사회적 평판을 중시하는 등의 태도)에 영향을 미친다면, 이를 매개하는 구체적인 심리적 기제는 무엇일까?

이 질문에 대하여, 본 연구에서는 집단주의 활동 가설 ('collective activity hypothesis')을 제안한다 (그림 1 참고). 예를 들어, 농업 커뮤니티에서는, 농부가 아닌 주민들도 농사로 확보되는 자원과 마을 단위 기반 체계 (관개 시스템, 마을 축제 등)를 보호하기 위해 단체 활동이 중요하게 여겨지며 (Hara & Kumagai, 2007; Talhelm et al., 2014), 이 외에도 마을 축제 등이 더 빈번하게 열린다고 한다. 이러한 활동의 참여가 늘어나게 될 때, 사회적 평판의 중요성이 더 커질 것이라고 저자들은 이야기한다. 다시 정리하자면, 본 연구는 농업이 주된 경제활동인 지역일수록 (1) 집단적인 활동을 통해 문화를 교류하고 구성원의 평판을 주고받을 기회가 늘어날 것이며, (2) 이러한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평판의 중요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가설을 세웠다.

그림 1

본 연구의 가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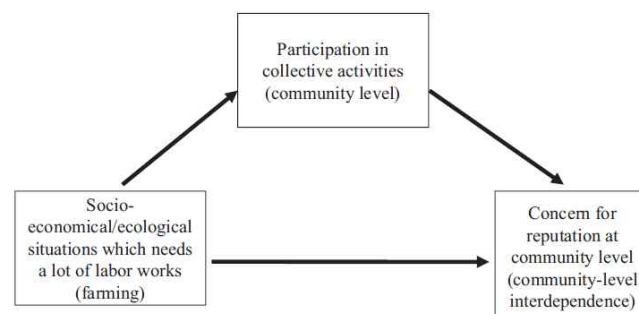


Figure 1. Model of the collective activity hypothesis.

연구 방법

우선, 본 연구는 집단 수준의 변인 (예. 농업이 주된 지역에 거주하는 것)과 개인

수준의 변인 (예. 농업 관련된 활동에 종사하는 것)이 사회적 평판을 중시하는 태도에 미치는 효과를 동시에 알아보기 위해 다층모형을 설계하였다. 나아가, 본 연구의 핵심 가설 ('collective activity hypothesis')을 검증하기 위해 집단활동의 참여도를 매개변인으로 설정하여, 다층경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구체적인 연구모형은 아래에 제시되어 있다.

표본 확보

일본의 서쪽 지역에서 샘플을 추출하였는데, 해당 지역은 농업, 어업과 도심지역이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는 경향이 있다. 이 장소의 농업지역은 대체로 쌀을 재배하는 논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72.6%; 일본 통계청, 2014), 세토섬 바다가 근처에 자리 잡고 있어, 어업이 활발한 지역도 다수 존재한다. 저자들은 지역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우선, 농업과 어업에 영향을 미치는 기후적 특성을 고려하여, 지리적으로 다양한 장소에서 표본을 추출하기 위해 노력했다. 또한, Maas 와 Hox (2005)를 참고하여, 다층모형에 충분한 크기의 표본의 수를 모았다 (적어도 50개 이상의 집단변인). 그 결과, 총 408개의 커뮤니티에서 7,364개의 개인 응답을 확보하였다.

주요변인과 설문내용 정리

결과변인: 평판의 중요성 (*Reputational concern*).

개인이 사회적 평판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측정하기 위해 단일문항을 사용하였다. 구체적으로 참가자들은 “나는 다른 이웃들이 나에게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신경을 쓴다.”에 5점 척도로 응답하였다.

1수준 변인: 농부의 여부 (*Farming*)와 기타 통제변인.

참가자들의 자신이 “농업(agriculture)”에 종사하는지를 표기하였다. 이는 농업(farming)이라는 변수로 구성이 되었으며, 농업에 종사하면 1, 종사하지 않으면 0으로 코딩되었다. 이 외, 다른 직업 항목에는 “수산-어업(aquacultural fishing)” 혹은 “어업(nonaquacultural fishing)”도 비슷한 방식으로 더미 코딩되었다. 성별, 나이, 가구의 크기, 거주기간 등은 통제 변인으로 투입되었다.

2수준 변인: 농부의 비율 (*Ratio of farmers*)과 기타 통제변인.

저자들은 농업 커뮤니티 (farming communities)를 농부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으로, 어업 커뮤니티 (fishing communities)는 상대적으로 어부의 비율이 높은 지역으로 정의하였다. 마지막으로, 도심지역은 인구밀집도가 높은 지역으로 정의되었다는 것을 고려하였다 (일본 통계청, 2010). 이를 바탕으로 농부의 비율, 어부의 비율, 수산양식 종사자의 비율과 인구밀집도를 2 수준 변인으로 포함하였다. 여기서 저자들이 중심적으로 보는 예측 변인은 농부의 비율이다.

매개변인: 집단적 활동 (Collective activities).

각 지역 커뮤니티의 집단적 활동을 측정하기 위해, 응답자들이 참여하는 여러 가지 활동들에 관한 질문에 응답하였다. 활동 목록은 농업과 어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것으로 다양하게 구성하였다. 구체적으로, 응답자들은 다음과 같은 활동에 참여하는지의 여부에 관해 응답하였다 (a) 커뮤니티 이벤트 (예. 지역 축제), (b) 재난 방지 그룹 활동, (c) 취미 관련 활동 (d) 나이별 활동 (예. 시니어 클럽, 청년 그룹), (e) 성별에 따른 모임들 (f) 전문적인 활동 그룹 (g) 공공시설 유지를 위한 활동 (h) 의식 관련 보조 활동 (i) 기타. 이를 합한 점수를 통해 집단 활동의 참여도를 구하였다. 집단활동은 경로 분석에서 1수준, 2수준의 변인으로 모두 투입되었다 (그림 2 참고).

분석 방법

분석1: 농업 커뮤니티에 거주할수록 사회적 평판이 중요해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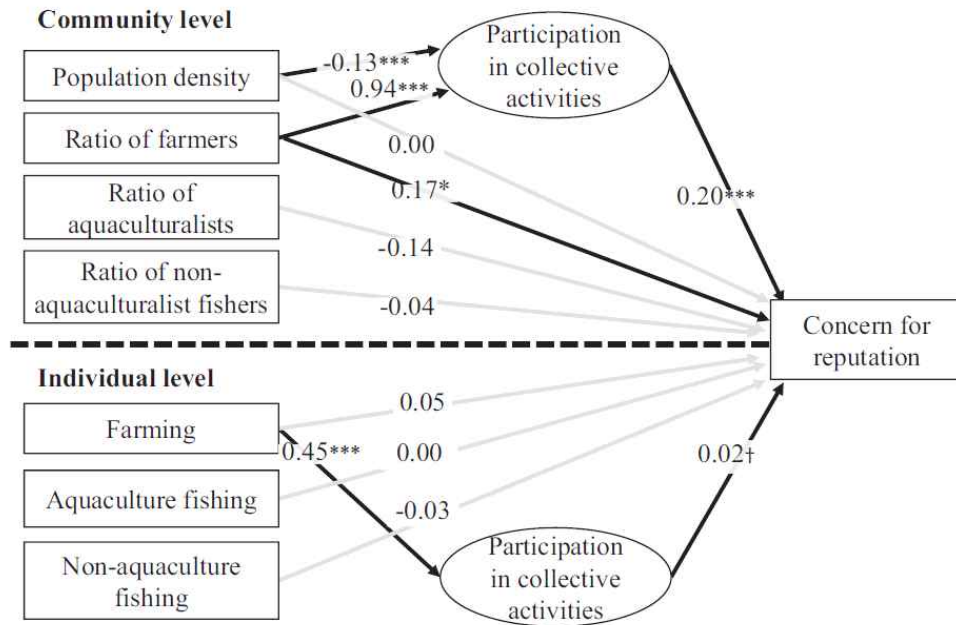
연구자들은 해당 지역이 농업 커뮤니티일수록 사회적 평판의 중요도가 높아지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 질문에 응답하기 위해, 우선 사회적 평판의 중요도를 종속 변인으로 투입되었고 2수준 예측 변인으로서는 농부의 비율로 구성이 되었다. 이 외에도, 개인이 농부인지 아닌지, 성별, 나이, 가구의 크기, 거주기간 등이 1수준 통제 변인으로 포함되었고, 어부의 비율, 인구밀집도 등은 2수준 통제 변인으로 포함되었다. 과연 개인이 농업에 종사하는지와 상관없이, 농부의 비율 (2수준)이 유의미하게 종속 변인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 다층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참고로, 모든 분석에서 개인 수준 변인들은 집단평균으로 중심화가 실시되었고, 집단 수준 변인들은 전체평균으로 중심화가 실시되었다.

분석2: 농업 커뮤니티에서 사회적 평판이 중요해지는 것은 집단활동의 참여와 관련이 있을까?

나아가, 농업 중심 커뮤니티에서 사회적 평판이 중요해지는 이유로 집단활동의 (예. 관개 시스템 유지, 지역 축제 등) 참여를 선정하였다. 만약 해당 커뮤니티 지역이 더 농업 중심적이라면 (다시 말해, 농부의 비율이 높다면), 커뮤니티 구성원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집단활동들이 많아질까? 그리고 이러한 활동들이, 사회적 평판을 중시하는 태도에 영향을 미칠까? 이를 알아보기 위해, 집단활동의 참여를 매개 변인으로 선정하였다 (그림 2 참고). 구체적으로, 집단활동 매개 변인은 1수준, 2수준의 변인으로 모두 투입되었다. 이를 분석하기 위해, 연구자들은 집단적 활동 변인은 개인 수준, 집단수준으로 분해하여, 각 수준에서 분석이 시행되었다.

그림 2

다층 경로분석 모형.



결과

결과1: 농업 커뮤니티에 거주할수록 사회적 평판의 중요도가 높아진다.

분석 결과, 사회적 평판은 농업 커뮤니티에 속한 사람들에게 더 중요하다고 판단하였지만 ($b = .34, p = .001$), 어부의 비율은 유의미한 영향력이 없었다 ($b = -.18, p = .390$). 농부인지의 여부 (1수준 요인)은 사회적 평판에 유의미한 영향력이 없었다 ($b = .06, p = .151$).

결과2: 농업 커뮤니티에서 평판이 중요한 현상은 집단활동의 참여도가 매개한다.

집단활동의 참여도가 농업 커뮤니티와 사회적 평판의 중요성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다층 경로모형을 분석하였다. 개인수준 통제변인들은 (성별, 나이 등) 사회적 평판의 중요성에 영향력이 없었으며, 다층 경로 모형의 적합도를 낮추었기에 모형에서 제외되었다. 이를 제외한 최종모델의 모형적합도가 높았다, comparative fit index (CFI) = 0.99, 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RMSEA) = 0.01.

우선, 개인 수준에서는, 농부들이 (농부가 아닌 사람들에 비해) 집단활동에 더 참여할 확률이 높았다. 뿐만 아니라, 집단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간접적으로 매개하였다 (간접 효과: $b = .18, p = .001$). 다만, 개인이 농부인지 아닌지는 사회적 평판의 중요도에 직접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 다음으로, 연구자들의 핵심 가설을 검증하였다. 집단 수준에서는 각 커뮤니티의 농부 비율은 집단활동의 참여 (직접효과: $b = 0.94, p = .003$)와 사회적 평판의 중요성 ($b = 0.17, p = .001$)에 영향을 미쳤다. 이 매개과정의 간접효과 또한 유의미하였다 (간접효과: $b = 0.18, p = .001$). 이를 통해 (1) 커뮤니티에 농부들의 비율이 집단 활동의 참여도를 높이며, (2) 집단 활동의 높은 참여는 사회적

평판의 중요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2 참고).

논의 및 한계

본 연구는 농업 중심 커뮤니티일수록 (1) 집단적인 활동을 통해 문화를 교류하고 구성원의 평판을 주고받을 기회가 늘어났으며, (2) 이러한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평판의 중요성이 높아진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농업 중심 문화가 개인이 지닌 평판의 중요도에 끼치는 과정을 다층 경로분석을 통해 보여주었다. 실제로, 농경사회와 집단주의적인 태도의 관계는 반복적으로 검증된 바 있다. 하지만, 어떤 과정으로 인해 일어난 지는 여태까지 검증하기 어려웠는데, 본 연구는 이전 연구들이 시도하지 못한 다층 경로 분석을 통해 문화 차이가 나타나는 구체적인 과정을 보여주기 위해 노력했던 점이 인상 깊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도 한계가 존재한다. 우선, 타인의 평판에 대한 문항은 하나의 문항으로만 구성되어 있으며, 이는 연구자들이 주로 관심 있었던 ‘집단주의’ 태도의 일부에 불과하다. 집단주의적인 속성으로는 다른 사람과 원활한 관계를 유지하고, 겸손한 태도를 보이는 등 여러 가지 요인들을 포함하는데, 이를 반영하지 못했다. 아래 변인들을 집단주의적인 행동이라는 잠재변수로 구성하여, 농업 중심 경제활동이 어떤 특성과 밀접한지 관련되어 있다면 기존 연구를 더 입체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매개 변인 (집단활동의 참여도)의 경우, 개인 수준에서 측정하여 연구자들이 집단 측정치를 만들어냈다고 보고했다. 이 과정에서 연구자들은 이 변인을 잠재변수로 취급하여 1수준과 2수준으로 분해하였다고 언급했지만, 자세한 설명을 덧붙이지 않았던 점이 아쉽다. 또한, 만약 2수준 매개 변인으로 집단활동의 참여도를 측정한다면, 각 지역의 축제나 집단활동이 몇 번 열리는지 알아봐 실제 커뮤니티 수준에서 시행되는 집단 단위 활동들의 개수를 파악하면 어떨지 궁금하다.

마지막으로, 독립변인, 매개 변인과 종속 변인이 모두 같은 시간에 개인 보고를 통해 이루어져서 인과적 결론을 내리는데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고 생각한다. 다른 사람들의 평판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향후 집단적인 활동에 참여하고 해당 지역으로 이주해서 살 확률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연령, 거주기간 등의 변인을 통제하였으며, 표본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연령대를 확보했다는 점, 지리적으로 넓은 지역에서 2수준 변인을 선정했다는 점에서 연구 결과에 타당도가 있다고 본다. 전반적으로 본 연구는 다층모형을 적절하게 활용하여, 이전 연구들과 일관적인 결론을 보여주었으며, 특히 적절하고 간명한 모형을 통해 매개과정을 비교적 명확하게 보여주었다고 생각한다.